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7/31/2022

22-32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녹) 연중 제18주일

(Gr)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The things you have prepared, to whom will they belong?”

루카 12,20/ Lk 12:20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Office)		(951)533-0580
주일학교	송세실리아	(951)346-6151
미래발전 위원회	유캐시미어	(951)515-1432
홍보분과	박분도	(952)378-7401
교육분과	김로사	(909)297-0809
전례분과	김마지아	(303)882-7022
전례부	김마지아	(303)882-7022
해설단	송율리아	(951)473-0156
성가대	강마리미카엘라	(909)322-9357
제대회	박세실리아	(952)378-7399
시설분과	차세바스티아노	(909)919-4270
방송	윤바오로	(951)966-1614
주방	안루시아	(323)314-6777
사회복지분과	이테레사	(951)532-2639
빈센치시오	안베드로	(213)718-1577
양업회	이마태오	(951)733-0389
선교분과	윤심포로사	(951)966-5868
셀기도	임유스티나	(951)235-1619
성령기도회	신모니카	(909)767-8808
성무일도	이테레사	(951)532-2639
연령회	이마태오	(951)733-0389
성심봉사회	조율리안나	(909)855-2008
구역분과	이세실리아	(909)573-4497
경의	김세실리아	(951)809-3007
지식	안세실리아	(951)345-5088
효경	정마올리나	(951)454-3182
군셈	김스콜라스티카	(909)781-8188
의견	이세실리아	(909)573-4497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지혜	강마리아	(951)234-4372

연중 제1/8주일 (다해)

18th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O God, come to my assistance; O Lord, make haste to help me! You are my rescuer, my help; O Lord, do not delay.

【제1독서/First Reading】..... 코헬 1,2; 2,21-23 / Ecc 1:2; 2:21-23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제2독서 / Second Reading】..... 콜로 3,1-5.9-11 / Col 3:1-5, 9-11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복음 / Gospel】† 루카 12,13-21 / Lk 12:13-21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 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You have given us, O Lord, bread from heaven, endowed with all delights and sweetness in every taste.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7/31 10am	7/31 3pm	8/2 7:30pm	8/3 10am	8/4 10am	8/5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블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신바로,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김동섭 비오, 권영옥 마리아	Armando Acosta	김대식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도요한 김베로니카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레자 요한, 김다니엘, 이미자 데레사& 조앤, 이마태오 가정, 이길균, 성발바라, 홍미카엘, 홍요안나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탐욕(貪慾Greed)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실리오(Basilios) 성인은 설교(내 공간들을 헐어 내리라)를 통하여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실리오 성인은 탐욕스러운 사람을 '충분한 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인은 많이 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특징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탐욕을 경계하라"(루카:12.15)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재산은 필요합니다. 그 재산은 자신과 가족, 이웃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데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탐욕이란 칠죄종, 즉 일곱 가지 죄의 원인 중 하나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사물을 지나치게 탐내는 욕심을 말합니다. 결국 이는 이성의 판단이나 윤리적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 인간의 품위를 하락 시키고 타락하게 하며, 무질서나 남용을 초래합니다. 아우구스티노 (Augustine) 성인은 탐욕을 모든 죄의 원인이며 뿌리로 여기면서 이를 오직 재물에만 국한된 욕망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절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따르면 이 욕망은 '사랑의 질서'를 깨트린다고 이해합니다. 더불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인간이 참된 성덕으로 나아가려면 '사랑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질서를 '향유'(frui) 와 '사용'(uti)이라는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성인에 따르면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향유해야 할 것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향유의 대상은 하느님이어야 한다고 정의 합니다.

끝으로 탐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탐욕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기심만 채우려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안과 열등감의 통로가 됩니다. 늘 불안하며 두려움속에 살기에 쥐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부족하고 낮다고 여기는 열등감은 돈에 대한 광적인 몰입과 집착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은 더 높은 대상을 향할 뿐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죄에 무감각 해집니다. 조금 더 갖고 싶은 욕망은 적절히 절제되지 않아 위험 한 행동을 감수하게 만들어 거짓과 배신 뿐만 아니라 폭력, 도둑질, 사기, 횡령, 살인과 같은 불법까지도 저지르게 합니다. 넷째,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진 사람은 종종 더 열정적이고 활력이 있으며 행복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좌절, 우울과 외로움의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의 벌이면서 동시에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탐욕스러운 자는 인간관계 안에서 외로움이라는 벌을 받습니다. "정승 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 이 죽으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늘 인간관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만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가지 요소 중 어떤 것이 자신의 모습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김대선 신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사랑합시다."

- 성녀 소화데레사 -

Entrance Hymn: All The Earth

All the earth proclaim the Lord;
sing your praise to God.
Serve you the Lord, heart filled with gladness.
Come into God's presence singing for joy!

Responsorial Psalm:

R. (1)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You turn man back to dust, saying, "Return, O children of men." For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as yesterday, now that it is past, or as a watch of the night.

R.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You make an end of them in their sleep; the next morning they are like the changing grass,
Which at dawn springs up anew, but by evening wilts and fades.

R.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right, that we may gain wisdom of heart.
Return, O LORD! How long? Have pity on your servants!

R.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Fill us at daybreak with your kindness, that we may shout for joy and gladness all our days.
And may the gracious care of the LORD our God be our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for us!
Prosper the work of our hands!

R. If today you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Closing Hymn: For The Beauty Of The Earth

For the beauty of the earth,
For the glory of the skies,
For the love which from our birth
Over and a round us lies:
Lord of all, to you we raise
This our gift of grateful praise.

"Let us love, since that is what our hearts were made for."

- Saint Therese of Lisieux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7/31 Sun 10am	송율리안나	김세실리아, 손데레사	김마지아, 박아가다	강마리미카엘라	
3pm		Daisy Ramos Suzanna Medina	최클라라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8/1 Mon	No Mass				
8/2 Tue	이명화데레사		박아가다	조율리안나	
8/3 Wed	박분도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8/4 Thurs	김소화데레사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8/5 Fri	신모니카		김마지아	조율리안나	
8/6Sat	김소화데레사	박분도			
8/7 Sun 10am	박세실리아	김요셉, 신모니카			
3pm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7월 / July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For the elderly

We pray for the elderly, who represent the roots and memory of a people; may their experience and wisdom help young people to look towards the future with hope and responsibility.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루카 12. 15

Though one may be rich,
one's life does not consist of possessions. Lk 12, 15

본당소식 / Parish News

◆ 연령회 회원 모집

일시: 오늘 10시 미사 후
장소: 양업관 5번 교실
문의: 이마태오 (951)733-0389

◆ 남가주 사제협의회

일시: 8/3(수) 오전 10:30
장소: 성 김대건 성당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8/5(금/Fri) 8pm

◆ 첫토요일 신심미사

(1st Saturday Devotion)
일시(Date/Time): 8/6(토/Sat) 10am

◆ 본당 신부님 여름 휴가

기간: 8/9(화) ~ 8/13(토)
이 기간 동안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 성령기도회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 성체조배실
문의: 신모니카
(909)767-8808

◆ 사목협의회

일시: 8/7(일) 10시 미사 후
장소: 양업관 5번 교실

◆ 쉼기도

모임을 8월 부터 대면으로 시작합니다. 쉼기도를 함께 하셨던 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시간: 매 주일 오전 11시
장소: 양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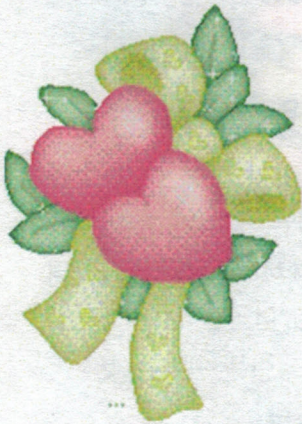


성체조배실 사용시간

화/수/목/금/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7/24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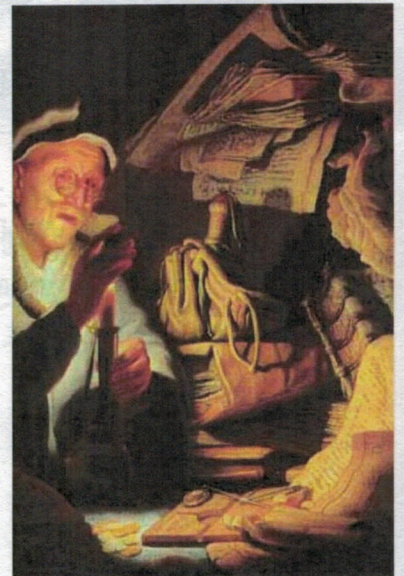
주일헌금/ Plate	10am: \$841 (118명) 3pm: \$211 (18명)
교무금 Envelope	\$560 임판수, 이경애, 채진
교구발전기금 DDF	
합계 Total	1,612



시간이란

(‘좋은 글’ 중에서)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고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통쾌한 시간은 승리하는 시간이고
가장 지루한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고
가장 서운한 시간은 이별하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비굴한 시간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시간이고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한 시간이고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시간이고
가장 분한 시간은 모욕을 당한 시간이고
가장 뿌듯한 시간은 성공한 시간이고
가장 달콤한 시간은 일한 뒤 휴식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사랑하는 시간이다.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성 김대건 성물방

담당자: 김말가리다
(951)640-0605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27. 세례 받지 않은 예비 신자가 모르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도 미사에 참여할수 있습니다(예컨대, 종교 미술 관람 방문객). 그렇지만 성체를 모시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이유는, 성체가 단순한 빵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밀떡의 형상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신앙을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공복재와 몸가짐 등의 준비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성체를 모시기 전/후의 마음가짐, 성체에 대한 공경은 오직 세례 받은 신자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 설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체를 영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성체의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일 경우 성체를 모시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성체를 요청한다면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 성직자들은 절박한 필요성이 생겼을 때에,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른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자진하여 성사를 청하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정당하게 성체를 영해 줄 수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1항 참조).